

상생의 문화를 위해 협력해 주시길

종교간 화합과 연대를 위해 진력을 다해주신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역대 대표회장님의 진력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제11대 대표회장으로서 이러한 공적의 토대 위에서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소임의 막중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임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노력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3년간 대표회장 소임을 맡아주신 김희중 대주교님과 각 종단의 수장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1986년 출범한 이후 종교화합과 인류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종교간의 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웃종교를 향한 종교대화협력’, WCRP와 ACRP와의 연대활동을 통한 ‘국제적 협력활동’, 조선종교인협의회와의 대화를 통한 ‘남북종교교류협력’, 그리고 2012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웃종교화합주간’ 등,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종교화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 단계 높여가고 있으며 모두의 공감속에서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교간의 원만함을 통하여 KCRP 본연의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ACRP 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잘 표현되어 총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회원 종단의 깊은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 이를 수 있는 일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종교화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서로의 이해와 존중이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호흡하듯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노력하여 사회 통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통합과 민족화해, 세계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주춧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 평화로운 인류공동체 구현을 위해 한국 종교인들의 지혜와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해진 소임 기간 동안 KCRP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욱 발전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자 승